광주비엔날레 세계의 눈 사로잡다

美 뉴욕타임스.

伊 미술잡지 플래시아트.

해외 언론 개막 30여일 앞두고
만인보 시인 고은의 삶·초대작가
특집기사 소개 등 앞다퉈 보도

개막 30여 일을 앞둔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 3일~11월7일)가 세계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플래시아트(FlashArt), 아트잇(Art it), 도무스(Domus) 등 세계 주요 언론과 예술 전문잡지들이 앞다퉈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언론은 이번 전시가 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에 맞춰 열리는 점을 부각시켰고, 주제인 '만인보'의 시인 고은의 삶과 초대작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1일 "개막이 다가오면서 50여 개의 해외 언론이 이번 전시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고, 중요 전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 주제와 참여 작가를 공개한 지난 2월부터 해외 대표 언론들이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준비 상황을 속속 소개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대표 예술잡지인 도무스는 지난달 29일 인터넷판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인 광주비엔날레가 이번에는 '만인보'를 주제로 정하고, 유명 작가들을 대거 초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무스는 광주비엔날레는 "넓고 다양한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제1회 대회에 160만명이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또 5·18에 대한 간략한 설명, 저항과 투옥을 거듭한 고은 시인의 삶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볼만한 작품으로는 고통받는 중국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 '렌트 컬렉션 코트야드'(Rent Collection Courtyard) 등을 꼽았다.

일본의 미술 잡지인 '아트잇'도 지난달 26일자로 이번 광주비엔날레의 대표작가의 명단과 작품 이미지를 지면에 선보였다. 브르스나우먼, 제프쿤스, 마이크 케리, 신디 셔먼, 앤디워홀 등 유명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며 일본 작가로는 전후 멀티미디어 그룹 '지켄 코보'(Jikken Kobo) 등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1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광주비엔날레 설명회 모습.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또 이번 전시는 '거대한 가족 앨범'이라고 밝힌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의 설명도 곁들였다.

세계 최고 미술 잡지 중 하나인 '플래시아트'도 같은달 16일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1901년과 20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수많은 삽화와 이미지를 전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잡지는 프놈펜의 투올 슬렝(Tuol Sleng) 형무소의 사형수 얼굴을 담은 사진 연작, 중국 작가 통 빙슈(Tong Bingxue)의 흑백사진 연작, 이데사 헨델스의 '테디베어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했다.

또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과의 대담(7월 14일), 참여작가 명단(4월26일)도 잇따라 게재했다.

이 밖에도 '뉴욕타임스'는 지난 2월12일 문화섹션에 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고, 영국의 예술전문잡지 '아트리뷰'도 4월26일 참여작가와 전시 주제 등을 게재했다.

재단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미술 축제로 성장했고, 젊은 기획자인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감독에 대한 관심이 더해져 해외 언론에서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누구나 비엔날레 작가될 수 있어요"

재단 시민참여자 공모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제8회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젝트 '나도 비엔날레 작가 : 찬란한 찰나'전 참여자를 공모한다.

'나도 비엔날레…'는 일반인이 작품을 창작하거나 전시를 기획해 원하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여는 행사이다.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참여자가 마련해야 한다. 오는 14일까지 장르에 상관없이 전시 기획안을 보내면 된다.

선정된 25개의 전시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작품제작·설치비용이 지원되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해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시상금도 주어진다. 문의 062-608-425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시 만나는 이청준 문학

2주기 맞아 … 묘역 앞에 '문학자리' 개원
'40년 작품세계' 총 34권 전집 발간 예정

이청준의 문학열정을 기리는 '글기둥'과 '미백바위'.

"그는 늘 해변 밭 언덕가에 나와 앉아 바다의 노래를 앓고 갔다. 노래가 다했을 때 그와 그의 노래는 바다로 떠나갔다. 바다로 간 그의 노래는 반짝이는 물 비늘이 되고 먼 돛배의 꿈이 되어 섬들과 바닷새와 바람의 전설로 살아갔다."('이청준 문학자리' 비문에 실린 '해변 아리랑'의 한 대목)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등의 작품을 남긴 소설가 이청준(1939~2008년)의 2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문학을 기리고자 시작된 추모사업이 하나 둘씩 결실을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장흥에 있는 고인의 묘역에서는 추모식과 함께 이청준추모사업회(회장 김병익)에서 기획한 '이청준 문학자리' 개원식이 열렸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추모사업회는 2주기에 맞춰 묘역 정비 사업과 전집 발간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31일 개원한 '이청준 문학자리'는 그 결과물이다.

'이청준 문학자리'는 우뚝 솟은 돌기둥인 '글기둥'과 14톤 무게의 평평한 '미백바위'(미백은 이청준 선생의 호), 고인이 손수 그린 장흥문학지도가 새겨진 '바닥'으로 구성된 석재 구조물로 고인의 묘역 앞에 꾸며졌다. 이 문학자리는 부부 조각가 박정환(광주교대 교수)·신옥주씨가 제작을 맡았다.

'글기둥'에는 김선두(중앙대 교수) 화백이 그린 고인의 초상, 한문학자 정민(한양대 교수)씨가 쓴 선생의 문학을 기리는 비문, 고인이 남긴 '해변 아리랑'의 한 대목, 약력이 각각 새겨져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전집발간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모식 행사에서도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내는 '이청준 전집' 1차 분 '병신과 머저리' '매잡이' 봉정식이 올려졌다.

5년에 걸쳐 33종 총 34권이 발간될 예정인 이청준 전집은 40년에 걸친 이청준 문학세계를 작품 발표순으로 정리하고 이청준 문학의 의의를 살피는 비평문과 함께 상세한 주해를 곁들일 예정이다. 또 생가를 매입해 문학답사자들의 편의를 돕고, 2011년 이청춘 문학관을 개관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모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그리스 로마신화는 왜 지금까지 읽히는 걸까?

'인문학 세일' 6·13일… 전남대 최혜영 교수 철학여행

'그리스 로마 신화'는 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걸까.

지난 6월 전남대 후문 인근 하나빌딩 6층에 철학카페 '필로소피아' 문을 연 전남대 철학과 성진기 교수가 두번째 '인문학 세일(Sail)'을 시작한다.

이번 철학 여행의 주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는 6일과 13일(오후 2시30분)에는 '21세기에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주제로 전남대 사학과 최혜영〈사진〉교수가 강의한다.

이어 9월에는 러시아 문학에 관심 있는 이들을 초청한다. 오는 9월 3일에는 문석우(조선대 러시아와과) 교수가 '러시아 문학에의 초대-톨스토이와 체홉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이종목 교수의 '행복학 강의'로 첫 문을 연 '카페 필로소피아'는 앞으로 분석철학 등 철학, 문학, 역사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강의를 열 계획이다. 문의 011-9603-3244. /김미은기자 mekim@

조정래 신작 '허수아비춤' 온라인 연재

소설가 조정래(67)의 신작 장편 '허수아비춤'이 온라인에 연재된다.

인터파크는 2일부터 매일 2개월에 걸쳐 글을 실을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인터파크는 독자들의 질문이나 궁금한 점을 모아 작가에게 전달한 다음 답변을 받아 독자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장편으로는 2007년 '오 하느님' 이후 3년여 만에 선보이는 조정래의 이번 작품은 대기업의 비리를 신랄하게 파헤치며 성장의 빛과 그늘을 조명한다.

작가는 비자금 문제와 전방위 로비, 재산 상속과 그룹 승계, 건설사의 분양 비리 등을 통해 자본과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